

“반갑다 프로야구”...시범경기 ‘플레이볼’

KIA,내일 NC戰 등 총10경기 12일 류현진과 맞대결 ‘주목’

기지개를 켜 프로야구가 시범경기로 2024 시즌의 문을 연다.

KIA 타이거즈는 오는 23일 정규리그 개막전에 앞서 최종 담금질을 위한 총 10경기의 시범경기를 치른다. (표 참조)

9일 창원에서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일에는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2연전을 갖는다. 12일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류현진과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은다.

이어 14일에는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 2연전, 16일부터는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를 홈으로 불러들여 각각 2연전을 치른다.

KIA는 시범경기부터 주전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며, 본격적인 ‘실전 모드’를 가동한다는 복안이다.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마치고 지난 6일 귀국한 이범호 감독은 “백업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특히 눈에 띄었고, 팀의 덩스가 두꺼워져 시즌 대비가 잘 됐다”고 이번 스프링캠프를 평가했다.

일	잠실	고척	문학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사직	창원	마산
9				LG-kt	삼성-한화			SSG-롯데	KIA-NC	키움-두산
10				LG-kt	삼성-한화			SSG-롯데	KIA-NC	키움-두산
11				SSG-kt	KIA-한화	LG-삼성		두산-롯데	키움-NC	
12				SSG-kt	KIA-한화	LG-삼성		두산-롯데	키움-NC	
13	이동일									
14	KIA-두산	키움-SSG		kt-한화	롯데-삼성				LG-NC	
15	KIA-두산	키움-SSG		kt-한화	롯데-삼성				LG-NC	
16	키움-LG			두산-SSG		NC-삼성	kt-KIA	한화-롯데		
17		키움-MLB		두산-SSG		NC-삼성	kt-KIA	한화-롯데		
18		LG-MLB		NC-SSG	롯데-kt	두산-한화		삼성-KIA		
19	키움-LG			NC-SSG	롯데-kt	두산-한화		삼성-KIA		

특히 부상에서 회복한 류현진이 3년차 윤도현이 3차례의 연습경기에서 13타수 6안타 3타점(2홈런)을 기록하는 등 맹타를 휘둘러 이번 전지훈련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혔다. 올해 고창팀에서 부활을 노리는 서건창도 9타수 5안타를 때려 팀 전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KIA는 양현종과 이의리, 윤영철과 함께 선발진을 꾸릴 새외국인 투수 듀오 크로우와 네일의 활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네일은 연습경기에서 2경기 5이닝 동안 탈삼진 6개를 속아내며, 단 3피안타만 허용, 무실점 후투로 팬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크로우도 5이닝 8피안타 1실점 1탈삼진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치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몸을 잘 만들어와 부상에서 낙오한 선수 없이 캠프를 마쳐 만족스럽다”며 “시범경기부터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며 컨디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홍철 기자



“배구 유망주 송태인의 白球의 꿈 함께합니다”

광주시체육회, 체육 유망주 발굴·육성...‘무한 성장’ 지원

빛고를 배구 유망주 송태인(문충중 1)이 광주시체육회 체육유망주로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체육의 미래를 빛낼 체육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체계적인 지원으로 스포츠 스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탁월한 신체조건(키 192cm)과 승부 근성이 탁월한 송태인은 체계적인 지도로 꾸준히 성장한다면 광주 출신 배구 국가대표 김요한을 잇는 차세대 스타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건국초 배구클럽에서 취미로 배구를 시작한 송태인은 나철수 비오신 코리아(광주 배구 실업팀) 지도자의 눈에 띄어 엘리트 선수로 추천돼 문충중으로 진학했다.

송태인의 성장을 지켜본 배구인들은 “보기 드문 장신 유망주로 현재는 센터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포지션이 정해진다면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며 “탁구 선수 출신 어머니의 운동 DNA를 물려받아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빠



광주시체육회 체육유망주로 선정된 송태인(왼쪽)과 광주시체육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르다. 잠재력을 꽃피워 무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장신인면서 기본기가 탄탄해 부상 없이 꾸준히 성장한다면 머지않아 광주 남자배구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라며 “광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스포츠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2024 광주시검도회-호주 빅토리아주검도연맹 국제검도교류 행사에 참가한 광주시검도회 관계자들이 호주 멜버른대학교 검도클럽과 세미나를 열고 양 도시 검도 발전을 위한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광주시검도회·호주 빅토리아주검도연맹

우호교류로 국제경쟁력 강화

광주시검도회가 호주 빅토리아주 검도연맹과 친선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광주시검도회는 지난달 15-27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과 타스마니아, 시드니 등지에서 ‘2024 광주시검도회-호주 빅토리아주검도연맹 국제검도교류’ 행사에 참가해 양 도시 간 검도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번에 호주를 방문한 광주시검도회 친선교류단은 오형석 회장과 최용훈 명예회장, 남태운 전무이사를 비롯해 서석교와 조선대 선수단 등 총 21명

으로 이뤄졌다. 친선교류단은 호주검도인에게 한국의 선진 검도 기술을 전하고 트레이닝 방법, 문화, 학술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호를 다졌다.

오형석 광주시검도회장은 “멜버른 대학교와 시드니 뉴아우스웨일스 대학교, 타스마니아 호바트 검도클럽 등 과 세미나 및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 광주시검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광주시검도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KIA, 정해영·이의리·최지민 ‘팀 코리아’로 뚝다

KBO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스페셜 게임’ 엔트리 발표

17-18일 고척서 샌디에이고·LA 다저스와 2연전

KIA 타이거즈 투수 정해영과 이의리, 최지민이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스페셜 게임’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로스엔젤레스 다저스와 연습경기에 출전할 한국 야구대표팀(팀 코리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당초 예비 명단에 포함된 선수 가운데 부상, 컨디션 문제로 총 9명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김영규(NC), 김윤식(LG), 나군안(롯데), 이승현(삼

성), 최승용(두산), 김도영(KIA), 김휘집(키움), 박승규(상무), 이주형(키움)이 제외되고, 이로운(SSG), 이병현(두산), 조병현(SSG), 나승엽(롯데), 박성한(SSG), 이우찬(두산), 김성운(삼성), 조세진(상무), 추재현(상무)이 승선했다.

KBO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최근 각 구단 스프링캠프 현장을 방문해 선수 부상 재발 과정, 컨디션을 점검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팀 코리아 명단 35인은 투수 17



정해영, 이의리, 최지민

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으로 구성했으며, 구단 별로는 SSG와 롯데가 가장 많은 5명, 두산, 한화가 4명, kt, NC, KIA 3명, LG, 삼성, 키움, 상무가 각각 2명씩 이

름을 올렸다. 팀 코리아는 17일-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샌디에이고, LA 다저스와 연습경기를 치른다.

/주홍철 기자



광주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브루노 올리베이라. <광주FC 제공>

광주FC, ‘철옹성 센터백’ 브루노 영입

“손흥민·김민재 활약 통해 K리그 알게 돼”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 출신 수비수 브루노(사진)를 영입했다.

광주는 7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브루노 올리베이라(27)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187cm·8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닌 브루노는 원발잡이 센터백으로 헤더

가 좋아 세트피스에 용이하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역습시 커버 플레이가 뛰어나다.

또 발 밑이 좋아 볼 배급과 탈압박 등에 능하며 공격전개에 힘을 실어주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루노는 브라질 클럽 포르투게자에서 데뷔했고 센트라우SC, IP상호신세 등의 팀을 거쳐 2022년 NK 시로키브리예그로 이적하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리미어리그(1부 리그)

에 안착했다. 팀에서 23경기의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확고한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잡은 브루노는 2023년 같은 리그 FK 벨레스 모스타르로 이적했다.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둔 브루노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K리그에 대해서 알게 됐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광주가 1부리그에서 단단히, 꾸준히 버틸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험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포 가동을 재개한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경기 연속골을 정조준한다.

토트넘은 10일 오후 10시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리는 2023-2024 EPL 28라운드에서 애스턴 빌라와 격돌한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막 선인 4위를 노리는 토트넘에는 분수령이 될 만한 경기다.

현재 EPL 순위표에서 토트넘은 승점 50으로 5위, 애스턴 빌라는 승점 55로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맞대결을 잡는다면 토트넘으로선 빌라와의 격차를 승점 2로 좁히고 막판 역전 4위 도약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 손흥민이 직전 라운드에서 모처럼 골맛을 본 것도 중요한 대결을 앞둔 토트넘엔 긍정적 요소다.

손흥민은 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43분 자신의 시즌 13호 골을 터뜨려 3-1 승리를 이끌었다.

히사리리송이 무릎 부상으로 빠지면서 크리스털 팰리스전 때 최전방에 출격해 해결사 본능을 뽐낸 손흥민은 이후에도 당분간 최전방에 배치될 공산이 커 특유의 ‘몰아치기’도 기대해볼 법하다. /연합뉴스